

韩国语语法 · · · · · 偏误及解析

何彤梅 朴善姬 ©编著

世界图书出版公司

韩国语语法偏误及解析

何彤梅 朴善姬 编著

世界图书出版公司

北京·广州·上海·西安

图书在版编目(CIP)数据

韩国语语法偏误及解析/何彤梅,朴善姬编著. —北京:世界图书出版公司北京公司,2009.1

ISBN 978-7-5062-8734-0

I. 韩… II. ①朴…②何… III. 朝鲜语-语法
IV. H554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2008)第 021803 号

韩国语语法偏误及解析

编 著: 何彤梅 朴善姬

责任编辑: 王 茜

出 版: 世界图书出版公司北京公司

发 行: 世界图书出版公司北京公司

(地址: 北京朝内大街 137 号 邮编: 100010)

电话: 64077922)

销 售: 各地新华书店和外文书店

印 刷: 三河市国英印务有限公司印刷

开 本: 880mm×1230mm 1/32

印 张: 6.25

字 数: 125 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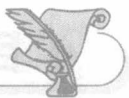
版 次: 2009 年 1 月第 1 版

2009 年 1 月第 1 次印刷

ISBN 978-7-5062-8734-0/H·1014 定价: 18.00 元

版权所有 翻印必究

前言



韩国语因其添加语的特点,助词、语尾等语法现象成了学生共同面临的难题,因此在语法学习过程中出现的偏误较多。本书为了帮助学生克服语法学习中的困难,对偏误现象逐个进行剖析,并提出了解决方案。考虑到本书的读者多为韩国语初学者,因此笔者选择了使用频率高、适合学生语言水平的句子,避免了因难度大而影响学生的学习兴趣这一问题。本书以传授语言知识为前提,指导语言实践为目的,对出现每种偏误的原因都作了分析并提出了解决方案。上述偏误都是笔者在教学过程中收集到的常见错误,因此本书能够有效地指导学生在语法学习过程中不再出现类似的问题,具有较强的针对性和实践性。本书适用于韩国语专业二年级以上学生以及其他韩国语初学者。笔者在编写过程中参考了国内外各种韩国语教材中有关语法的内容,力求为帮助学生避免语法学习的偏误开辟出一条捷径。

由于笔者水平有限,稿件难免存在不足之处,恳请专家和读者给予批评、指正。

作者

2008年2月

● 目录

第一章	助词	1
第二章	连接语尾	54
第三章	名词形语尾	114
第四章	时制和时制语尾	138
第五章	被动用法和使动用法	157
第六章	否定用法	181

第一章 助词



格助词

1. 主格助词

1) 替换错误

가/이

- (1) 나는 취직시험이 끝낸 날부터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을)
 오후 나는 친구와 같이 버스가 타고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를, 도서관)
 시험이 잘 치지 못하였다. (을, 보)
 나는 책이 사서 동생에게 주었다. (을)
 수업이 듣다가 기숙사에 갔어요. (을)
 바쁘고 피곤할수록 몸이 조심하셔야 해요. (을)
 어제는 오랜만에 시간이 내서 서점에 갔어요. (을)
 학생들이 돈이 이 원씩 내야 합니다. (을)
 비가 와서 운동회가 열 수 없습니다. (를)



错误 应该用“-를(을)”,却使用了“-가(이)”。

方案 汉语中没有格助词,由此导致学生常常混淆“-를(을)”和“-가(이)”,因此要对自动词和他动词加以区别。因为自动词数量相对较少,所以可以对自动词采取单独记忆的方法。

例 이번 회의에 참가할 대표를 뽑읍시다.

방학이 되어 기차역에는 집에 가는 학생들로 붐벼요.

上述错误是将“-가(이)”替换成“-를(을)”的,因此,第一个例句是有关“-를(을)”的,第二个例句是有关“-가(이)”的,本书所举的例句都是按照此顺序排列的。

(2) 무용경기가 많이 참가했습니다. (에)

어제부터 나는 감기가 좀 걸리고 열이 났다. (에, 걸렸고)

그 신은 내 발이 맞습니다. (에)

错误 应该用“-에”,却使用了“-가(이)”。

方案 韩国语中词组的连接一般使用助词“-가(이)”或“-를(을)”(如“비가 오다, 밥을 먹다”)。而在汉语中“비가 오다”和“감기에 걸리다”的连接关系相似,所以学生常常在类似于上面例句的句子用“-가(이)”。韩国语的词组大多使用助词“-가(이)”和“-를(을)”来连接,除此之外,副词格助词“-에”的使用也非常频繁。例如“몸에 좋은 약”,“마음에 들다”等连接关系中,前面的部分都是以目标或目的、对象等状语形式出现的。上述例句也属于这种情况,所以必须用“-에”。

例 학생들 수준에 맞는 교재를 만들어야 해요.

품질이 이전보다 많이 개선되었어요.



(3) 이 문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손들어 보세요. (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지식을 더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은)

错误 应该用“-는(은)”,却使用了“-가(이)”。

方案 主语后可以接“-가(이)”,但如果要体现对比或强调,则应使用“-는(은)”。

例 이 모임에 참가할 사람은 수업이 끝난 후에 남으세요.

어떤 낯선 사람이 지에 씨를 찾습니다.

(4) 저는 고향의 감정가 조금 변화가 없습니다. (고향에 대한, 감정이, 조금도)

국가에 따라 습관이 달라요. (이)

하지만 아무래도 언제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emptyset$, 이)

($\emptyset$ 符号表示去掉划线部分内容。)

错误 应该用格助词“-이”,却使用了“-가”。

方案 在学习格助词时,学生一般按照“-가, -이”的顺序来学习。教师和教材也一般按照这样的顺序来教授和讲解,所以学生一旦要用到主格助词首先想到的就是“-가”。相对来说,该用“-이”时误用“-가”的现象较少。由此可见,这种错误并不是因为混淆,而是由于教材或教师讲解方式过于单一而引起的。教材中提及主格助词时,尽可能地不要仅以“-가, -이”的顺序出现,同时也要以“-이, -가”的顺序出现。学生在掌握时也应该注意主格助词的顺序。

例 시간이 많이 들지 않을 겁니다.



나의 취미가 많습니다.

(5) 당신은 무슨 이유가 이렇게 저를 대하는가요? (로)

그는 새 학생이 이제 완전히 탈바꿈(焕然一新)하다. (으로, 하였다)

错误 应该用“-로(으로)”,却使用了“-가(이)”。

方案 对格助词“-로(으로)”的用法不熟练,从而使用了最常见的“-가(이)”。上面两个例句都要用“-로(으로)”,因为第一个句子表示原因,第二个句子表示变化的结果。

例 무슨 원인으로 사고가 났어요?

성적이 내려간 데는 무슨 원인이 있어요.

(6) 저는 동생이 올 편지를 받았어요. (한테서, 은)

错误 应该用“-한테서”,却使用了“-가(이)”。

方案 例句中的宾语在汉语中可以译为“(从)弟弟那儿来的信”。与“-한테서”对应的“从”可有可无,后者没有出现“从”,因此学生可能会把“동생”错认为是主语而使用助词“-이”。例句中,“동생”+助词+“오다”做了句子的定语,而“동생”是行动的出发点,因此两个单词之间必须用表示活动体名词发生行为的处所或表示开始行动的处所的助词“-한테서/에게서”,整个定语又需要添加定语形语尾“-ㄴ”。

例 친구한테서 온 문자를 못 받았어요.

언니가 보낸 생일선물을 받았어요.

(7) 올해 여름철에 나가 고향에 돌아갔다. (내가)



그에게 너가 소중합니다. (내가, 소중하다)

선생님한테 누가 말씀드릴 겁니까? (누가)

错误 该使用“내가, 네가, 누가”,却使用了“나가, 너가, 누구가”。

方案 一部分人称代词,如“나, 너, 저, 누구”在和主格助词“가”结合的时候,或缩略或变形成为“내가, 네가, 제가, 누가”等形式。学生在入门阶段掌握这些代名词时,不应该只记忆单一的单词形式,还要掌握和主格助词“가”相结合的形式。而这些代词和其他的格助词结合时形态不发生变化,这一点也应该注意。例如“나는, 나를, 저도, 누구는 …”等,人称代词“나, 너, 저, 누구”和“는, 를, 도”相结合时没有形态变化。

例 내가 보낸 메일을 받았지.

제가 찍은 사진을 보여 드릴게요.

누가 전화했는지 궁금해요.

2) 遗漏错误

(1) 선생님과 학생 친구처럼 지내요. (학생이)

错误 遗漏助词“-이”。

方案 韩语的主格助词、宾格助词在口语中经常被省略,加之受汉语的影响,助词被遗漏的错误也较为常见。因此,即使可以省略助词也尽量不要省略。特别是在入门阶段,就应该养成把句子表述完整的习惯。

例 눈이 와도 비행기가 제 시간에 도착할 거예요.

집에 무슨 책이 이렇게 많아요?



(2) 나는 영철처럼 그를 도와주겠어요. (이처럼)

错误 应该用“영철이처럼”,却使用了“영철처럼”。

方案 “영철”是以闭音节形式结尾的人名,后面一般添加“-이”(영철이)。因为“-이”加在人名后面表示称呼时,可以给人亲切之感,所以应为“영철이처럼”。“-이”后也可加“-가”(영철이가),这样能使主语更加明确。但是外国人的姓名后并不能接“-가”。例如“툼슨처럼 배낭여행(自助旅游)을 가요.”成立,但“툼슨이처럼 배낭여행을 가요.”却很不自然。中国人的人名后也很少加“-가, 이”。

例 유진이는 거리에서 준상이처럼 생긴 사람을 봤어요.
명선이처럼 공부 잘 하는 아이는 꼭 합격할 거야.

3) 添加错误

아이스크림도 매끄러운 감은 눈이 같습니다. (눈같습니다)

错误 应该是“눈같습니다”,却使用了“눈이 같습니다”。

方案 学生可能认为“눈”和“같다”之间应该用助词连接,所以添加了“-이”。如果表示“比较之下无相异”,要使用“같다”这个词,但这时候前面的助词只能是“-과”(물과 같다),或可以直接接“같다”(물같다)。

例 세월이 흐르는 물같아요.

그 아저씨는 성격이 불같아요.



2. 宾格助词

를/을

(1) 그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습니다. (가)

그는 훌륭 청년이어서 일을 있을 때 늘 앞장선다. (훌륭한, 이)

시험시간을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 까지이다. (이)

우리들은 모두 잠을 들었습니다. (이)

철수도 그런 경험과 느낌을 있어요? (이)

아버지는 아들을 집에서 책을 본다고 하였다. (이)

이 도시를 활기칩니다. (가)

나는 실습을 끝난 후 고향으로 갔습니다. (이)

책가방에 각종 책들을 꼭 들어챘다. (이)

나는 그 사람을 싫다. (이)

이렇게 시간을 빨리 지났어요. (이)

그 안경을 마음에 들어요. (이)

그의 음악을 참 좋습니다. (이)

이 옷을 저한테 어울릴 것 같은데요. (이)

오후에는 사정을 생기기 때문에 회의를 못합니다. (이, 있기)

지금까지 그 사람을 누구인지 몰라요. (이)

그의 말을 사실과 어긋났다. (이)

자식의 학비와 생활비 등을 아버님에게 많은 부담을 주었다.

(이)

나와 같은 사람을 아주 필요하고 사람의 수량이 적다고 생각하

니까요. (이, 이런 사람의)

난 지금 자아 조절을 필요한다. (이, 필요하다)



저는 그 사람을 매우 부럽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나는 그의 날씬한 몸매를 아주 부럽다. (가)

错误 应该用“-가(이)”,却使用了“-를(을)”。

方案 汉语中没有自动词和他动词的严格分别,也没有助词,所以学生要区分“-를(을)”和“-가(이)”比较困难。而且在汉语中能做宾语的词汇在韩国语中有时并不能接宾格助词,所以常会出现错误。虽然区分主格助词和宾格助词较为困难,但它们是韩国语语法的基础部分,因此一定要注意区分。一般在主语后接“-가(이)”,而宾语后则要接“-를(을)”。如例句“그의 말이 사실과 어긋났다.”中,很明显“말이”是主语,所以使用主格助词。另外,例句“난 지금 자아 조절이 필요하다”中,“필요하다(需要)”是形容词,前面应为“-가/이”。

例 저 친구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요.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2) 그는 11살부터 한국말을 흥미를 가졌습니다. (에)

졸업을 즈음하여(毕业之际) 이 글을 발표하였다. (에)

병을 걸렸을 때 가족은 제일 좋은 약이다. (에)

빈곤한 생활이 애정을 영향 준다고 여긴다. (사랑에)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볼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에, 못했기)

선생님은 학생의 잘못을 대해 꾸짖었다. (에)

아버지는 우리 가족은 삼각형이라는 나의 말을 동의했다. (에)

그는 고향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에)

병을 걸리지 않은 것이 다행입니다. (에)

错误 应该用“-에”,却使用了“-를(을)”。



方案 上述例句在汉语中是“宾语－谓语”的结构，所以误用了宾格助词“－를(을)”。汉语和韩国语的宾语是有差异的，汉语的宾语在韩国语中除了要加“－를(을)”之外，很多时候还需要加“－에”。一般动词在和名词结合时，结构是“약을 먹다, 영화를 보다”的形式。但是“걸리다, 동의하다, 붙다”等这些着重表示与后边名词关系的词组，前面应使用“体言＋에”的结构。

例 한국 드라마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어학과에 왔어요.

한국어를 좋아하지만 좀 어려워요.

(3) 그 여자를 첫눈에 반했습니다. (에게)

앞으로 아버지를 잘 보답하겠습니다. (에게)

错误 应该用“－에게”，却使用了“－를(을)”。

方案 例句如果用汉语表示，则“여자, 아버지”是宾语，所以本应当用“－에게”的地方，却误用了“－를(을)”。例句要表示的是某种行为对其行为对象的影响，因此一定要使用“－에게”。

例 친구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그 사람에게 속았어요.

(4) 빵을 있는데 우유가 없습니다. (은)

错误 应该用“－는(은)”，却使用了“－를(을)”。

方案 例句表示对比，所以应该在名词后加补助词“－는(은)”。

例 전기는 있는데 물이 안 나와요.

빵을 사고 우유도 샀어요.

(5) 어머니는 머리가 하얀 색을 변했습니다. (으로)



错误 应该用“-로(으로)”,却使用了“-를(을)”。

方案 学生认为“하얀 색”是宾语,所以在句中误使用了宾格助词。“하얀 색”并不是宾语,而是变化的结果,因此应接“-로(으로)”,同时还应将“변하다”之类的表示变化的动词综合起来一起掌握。“변하다, 되다, 변모하다, 거듭나다(获得新生), 탈바꿈하다(脱胎换骨)”等这些动词前的名词都要使用“-로(으로)”。

例 달은 배모양으로 변했어요.

벽에 하얀 색을 칠했어요.

(6) 한달 전 저는 무슨 원인을 몰라서 가족들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인지)

错误 应该用“-인지”,却使用了“-를(을) 몰라서”。

方案 汉语里无论前面的宾语是不是确定的事实,都没有特殊的区别。而韩国语中表示确定的宾语时用“-를(을)”,表示不确定的宾语时应该用体言和“인지”相结合。

例 선생님 댁이 어디인지 몰라서 한참 찾았어요.

나는 그 사람을 잘 몰라요.

(7) 저는 언니가 행복을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행복하기를)

错误 应该用“행복하기를”,却使用了“행복을”。

方案 上句是直译了汉语句“我真心希望姐姐幸福”而犯的错误。这个句子的宾语不是单个名词而是词组“언니가 행복하다”,因此要用后面加“-기”的表现形式。而且,因为谓语是“빌었습니다”,所以应该联想到句型“-기를 빌었습니다.”,这种错误在与“-기”有关的错误分析中也将会被提及。另,例句也可以说成“언



나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例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건강을 빌었습니다.

(8) 위병 있으니가 아무 음식을 먹자마자 토했다. (위병이, 이나)

错误 应该用“- (이)나”,却使用了“-를(을)”。

方案 由于不清楚冠词“아무”和助词“- (이)나”的连接方法,认为出现的只是一般的宾语,所以用了“-를(을)”。在谓语表示肯定的句子中,冠词“아무”应该有助词“- (이)나”与之相呼应。因为“- (이)나”是助词,表示从多个中选择其中的哪一个都没有关系,所以例句应该用“아무 음식이나”。“아무”和表示否定的谓语一起使用时,可以和助词“도”搭配使用,例如“교실에 가보니 아무도 없었어요。”。但是也有特殊情况,如在“아무 말이나 하지 마세요。”这个句子中“- (이)나”看似用于否定句中,但这时句子的前一部分“아무 말이나 하다”并不是否定的表现形式,所以应当使用“- (이)나”。

例 아무 곳에도 가지 말고 집에서 소식을 기다리세요.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마세요.

2명의 학생을 한국에 보냈다.

3. 属格助词

의

(1) 왕동의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이)

错误 应该用“-가(이)”,却使用了“-의”。



方案 例句混淆了主格助词“-가(이)”和属格助词“-의”的用法,由于“-의”和“-이”的发音相似,“-의”有时会被读作“-이”,因而会出现这种错误。另外,对句子成分的错误分析也可能成为导致主语被误用为定语的原因。属格助词“-의”由于意义单一,所以被误用的情况相对较少,只要把“-의”的三种发音都记清楚就可以很好地避免错误的发生。“의”的三种发音分别是“이, 에, 의”,如:회의[회이], 학교의[학꾜에], 의자[의자]。

例 저 학생이 이번 연설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저 학생의 이름을 아세요?

(2) 특히 수학의 성적이 제일 나빴습니다. (ø)

우리나라의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ø)

错误 不应该用“-의”。

方案 韩国语中前后名词之间如果是明显的所属关系,不用助词“-의”会更加自然。关于“-의”的省略以及不能接“-의”的情况说明如下:第一,人称代词“나, 너, 저”和“-의”结合时分别缩略为“내, 네, 제”;第二,前后名词是所属关系时助词“-의”可省略;第三,所属关系不明确的名词之间的“-의”不能省略,例如“명절의 거리, 행복의 웃음”等等。

例 통일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의 학생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3) 상해에서 북경까지의 가는 손님들은 대합실에서 기다리고 있다. (ø)

错误 不应该用“-의”。

方案 例句的汉语形式是“从上海到北京的客人……”,其中出现